



정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공식 출범

5월30일 창립총회, 김재철 회장 위원장으로 선임



유치위원회는 앞으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및 경쟁국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결집한 총력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제적 수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사회 기반 시설 확충 등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BIE 실사에도 차

2012 세계박람회 여수유치를 추진할 '유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해양수산부는 민관합동 유치위원회가 5월3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김성진 해양부 장관, 경제 5단체장을 비롯한 정부 및 관련 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박람회 유치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유치위원회는 위원장에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전 무역협회 회장)을 선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전남지사 등 정관계 인사, 경제5단체장 등 경제계인사 및 언론계·학계 등 각 계층의 사회 지도급 인사 80여명으로 구성됐다.

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민관합동 유치위원회 출범으로 지난 3월 구성된 정부 차원의 '2012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위원장 총리)', 국회차원의 '2012세계박람회 유치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의화 의원)'와 더불어 박람회 유치를 위한 범국가적 협력 체제가 완비됐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5월22일 예상경쟁국인 모로코·폴란드보다 먼저 BIE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BIE 공인 세계박람회는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행사로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할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우리나라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